

3. 삶을 계획하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봅시다.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꿈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준비하고 키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꿈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 41:38]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5월 1일

하나님의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

◆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01장
- 성경읽기 : 창 41:37-45 (구약 64면)
- 말씀나눔 : 하나님의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보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38-39절).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합니다(40-41절).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 사슬을 주고, 버금 수레에 태워 애굽 사람들 앞을 돕니다(42-43절). 바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애굽식 이름을 하사하고, 애굽 제사장 딸과 결혼시켜 애굽 궁정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44-45절). 특히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인 온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시킨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로, 요셉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바로의 친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라는 맨 밑바닥 인생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잠 9:10). 바로까지 인정할 정도로 지혜롭고 명철했던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16, 25, 28, 32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 세우셨습니다(시 54:4).

1. 말씀 관찰

1) 바로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나요?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38절). 바로 주변에는 학식이 깊은 사람, 탁월한 정치인, 치밀한 행정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정치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내용, 말하는 자세, 말하고 있는 확신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말은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2)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나요? (3절)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결재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총리 신분엔 걸맞은 옷을 입히고 글 사슬을 목에 걸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의 신분을 한 눈에 알아볼 버금 수레에 하사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죄수에 불과한 요셉에게 왜 이토록 과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세상을 구원할 준비된 리더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37절). 하나님의 때에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2. 말씀 적용

1) 하나님이 나의 꿈을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2)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섬기고 싶은지 함께 나누어봅시다.